

국감에 존재감 없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정책 비판 실종·대안 제시 못해... 현안 사업도 나몰라라 전체 18명 소속 사분오열 ... 이슈 선정·역량 결집 어려움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진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검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기던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남 정치의 무기력이 국감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 정치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전체 18명의 의원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3명, 민주평화당이 9명, 바른미래당 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적 역량 결집이 되지 않고 있다. 각 당의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상임위 지정과 이슈 선정에 있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통위에는 천정배·박주선·이정현 의원 등 3명이나 몰린 반면, 지역 현안과 관련이 많은 기재위·교육위·국방위 등에는 지역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 3선 이상이 무려 7명이나 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에서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국감에서 정부 부처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재선 의원들

도 강한 야성(野性)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전형적인 '관료 국감'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초·재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교섭단체가 됨에 따라 상임위 간사를 맡지 못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그만큼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소속을 고집하고 있는 손금주 의원에 대한 눈총도 상당하다. 손 의원이 평화당에 합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화당 내부의 불신 구조도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분당으로 깊어진 광주·전남 의원들의 감정의 골도 문제다. 과거 국감을 앞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논의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진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로 '소가 닭 보듯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감은 물론 다가올 예산 국회도 걱정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지만 현 지역 정치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을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중진들이 나서야 되며 이를 외면한다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총리 "대권 생각 없다"

MBC 방송 출연... "총리로서 국정·대통령 보좌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총리는 17일 MBC '100분 토론' 800회 특집방송에 출연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즉각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어 "총리"고 즉각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어 "총리"고 즉각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어 "총리"고 즉각적으로 답했다.

이 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 총리는 차기 대선주자 1위 반열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의 대선 불출마 답변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당연한 대답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오면 이 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다시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선주자 1위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저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욕심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신 것은 아닐까 싶다. 여러 측면에서 몹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 총리는 차기 대선주자 1위 반열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의 대선 불출마 답변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당연한 대답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오면 이 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다시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孫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한국당 세불리기 급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대통합은 수구 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한국당은 태극기부대까지 통합대상이라며 오직 수구세력 묶음 불리기에 급급해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합집산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새로운 정치"라며 "한국당은 극단적 시장만능주의로 돌아가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른미래당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제가 나섰다"면서 "우리는 지금 가난하며, 고난의 행군을 통해 중도개혁의 가치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를 방문, 태봉국 철원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靑 비서실장 DMZ 지뢰 제거 현장 방문

작업 상황 점검·장병 격려... 이번주내 작업 마무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 임 실장은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

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이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군사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이달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헌재 공백' 끝... 재판관 선출안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얻었으며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를 가결됐다.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 후보자 인준이 미뤄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한 헌재 공백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결국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임동욱 기자 tuim@

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 후보자 인준이 미뤄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한 헌재 공백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결국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 "민생 의제, 법·제도 통해 해결"

민생연석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기존 을지위원회와 의견을 넓힌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5대 민생

의제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계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을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화영 의원을 편익점 최저수익보장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임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